

지배와 저항의 문자

- 서구 중세사회를 중심으로*

최 경 은**

[국문초록]

문자가 발명되고 그 사용이 드물었던 시대에 예수는 구전으로 복음을 전한다. 예수의 시대에 문자의 사용자는 극소수였고, 문자를 기록하는 매체가 귀한 시대였다. 예수의 말씀은 곧 문자로 기록되어 경전으로 발전되었으며, 경전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성직자들이 맡게 되었다. 그들이 문자로 기록된 성서와 중세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를 독점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평신도와 대다수가 문맹인 백성들을 지배했다.

대학의 설립, 종이의 유입, 도시계급의 성장 등은 문자를 매체로 중세를 지배했던 교회와 수도원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문자사용을 독점하고 있었던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평신도를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성서금지 정책이었다. 성서가 이해하기 어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NRF-2010-361-A00018).

이 논문은 ‘연세대 인문학연구원/히토쓰바시대대학원 언어사회연구과 공동세미나’(2014.11.21.)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문자, 지배, 저항, 성서금지, 인쇄술

Letters, governance, resistance, the prohibition of bibles, printing technology

렵고, 왜곡의 위험도 항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는 성서를 구입하거나 읽지 말고, 교회를 통해 성서를 이해하라는 것이 성서금지 정책의 주 내용인데, 특히 성서가 독일어같은 민중어로 번역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인쇄술의 도움으로 문자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 되었다. 문자가 소수의 독점으로 인한 지배의 매체에서 다수의 사용을 통한 저항의 매체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의 결과물이 종교개혁이다. 인쇄술이라는 대량복제 기술과 종교개혁이라는 ‘성서 다시읽기 운동’을 통해 문자는 예술품에서 대중매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1. 서론

인류의 문명 발전 단계에서 문자의 발명과 생산, 그리고 문자의 독점권을 지키기 위한 문자사용의 금지와 인쇄술을 매개로 한 문자사용의 확산 등의 배경에는 언어적, 혹은 교육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정치 종교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서구 중세사회가 그러한데, 문자를 독점한 집단이 권력을 소유하고, 권력을 지닌 집단이 문자를 통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는 지배를 위한 매체인 동시에 저항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중세를 종식시켰던 종교개혁의 이면에는 일부 계층에게만 전달되었던 정보와 지식을 일반 민중에게 전파시킨 성서의 번역작업과 신기술인 인쇄술의 보급이 자리 잡고 있다.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자가 지배층의 권력유지에 사용되었든, 그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든 공통된 점은 문자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부여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문자가 특정 맥락에서 어떻게 힘을 작동시켜왔는지, 특히 서구 중세사회에서의 다양한 양상을 추적하여 문자가 권력과 맺고 있는 관계의 역사를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문자의 신성(神性)

고대사회에서 문자를 다루는 사람은 말씀의 보관자였으며, “말씀은 곧 신이었다.”¹⁾ 경전의 종교인 그리스도교에서 문자의 경배, 문자 재생의 책임을 맡은 이에 대한 존경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성서에서 최초로 기록된 ‘문자’의 사용자도 하느님이셨다.²⁾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중세사회에서 텍스트의 보관자로서 문자를 습득한 성직자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중세 중기에 교황이 누렸던 놀라운 권력은 이중 언어 사용자인 성직자계급이 라틴어와 민중어를 매개함으로써 땅과 천국 사이를 연결시켜, 인간이 죽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안내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했다.

중세 중기까지 중세사회에서 사용된 ‘문자’의 의미를 추적해보면 ‘문자’의 현대적 의미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 시기에 문자는 오늘날처럼 자의적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약속을 정해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기호가 아니었다. 세비아의 주교 이시도루스(560-636)는 『어원』(630년경)에서 문자가 신성한 상징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신의 말씀을 진리의 신비로운 징표로 보았고, 문자를 비롯하여 모든 그래픽 기호를 성서에 기록된 신의 계시를 보여주는 물질적인 매개체”³⁾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중세에서 문자는 존재론적 진리로 가는 통로로 인식되었고, 현실의 표상이라기보다는 현실의 파생물이었다. 문

-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요한복음 1장 1절)
 - 2)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문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문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출애굽기 32장 15-16절).
 - 3) 이혜민: 「중세유럽의 문자관. 세비아의 이시도루스의 『어원』을 중심으로. 실린 곳: 인문학연구원 HK문자사업단 편, 『문자개념 다시보기』.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3, 215-245, 여기서는 p. 227.

자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되었고, 이러한 믿음은 문자의 의미가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 반영되었다. 문자에 대한 이러한 ‘아담적’ 관점⁴⁾에서 지식의 추구란 아담의 창조 이후 문자와 사물 간에 신적으로 정해진 자연적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 미셸 푸코는 이런 아담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내부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대지의 표면에 찍어 놓은 가시적 표시들과 성서에서 비롯되었고 전통에 의해 우리에게 보존되어 온 책 속에 담긴 가독적 문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⁵⁾

신약의 복음서에도 문자를 나타내는 ‘Schrift’는 구약처럼 예부터 전래하는 기록된 성스러운 문서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문자를 가르치는 사람’(Schriftgelehrte)이란 어휘에 복합어 구성성분으로 사용된다.⁶⁾ 마태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어도 여덟 번 이상 구약에 기록된 문자를 그 증거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예수 자신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문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누가복음 24장 44절)고 말한다.⁷⁾ 이와 같이 성서에서 ‘문자’

4)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창세기 2장 19-20절).

5) Foucault, Michel(1970), *The Order of thing, An Archaeology of Human Sciences*. New York, p. 33.

6) 루터성서의 복음서에는 ‘Schrift’와 ‘Schriftgelehrte’(한글성경에는 ‘선지자’로 번역되어 있음)이 총 97회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Schrift	3	4	4	14
Schriftgelehrte	26	22	22	2
합계	29	26	26	16

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의 성스러운 원천으로 중세인들에게 각인되었다. 성서의 내용을 성직자의 설교로 매번 접했던 그들은 문자 자체에 대한 숭배에 세뇌되었고, 문자는 형이상학적이고 마법과 같은 힘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신이 알파벳을 발명했기 때문에 문자는 성스러운 것이다. 성스러운 것이 기적으로부터 탄생하고 기적과 마법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식별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신성함, 기적, 마법 이 세 용어는 쉽게 혼용되었다. 문자는 근원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대상이었고 마법의 원료였다.⁸⁾

예컨대, 11세기의 한 처방전에는 열병환자들에게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열아 날아가 버려라”고 쓰인 양피지 조각들을 목에 감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자가 가졌다고 생각된 성스러운 힘은 갑옷 아래에 양피지 두루마리를 걸치거나 기도문과 이상한 조합 문자를 무기에 새겼던 십자군들의 습관, 그리고 보채는 아기는 머리에 성서를 얹어 잠들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⁹⁾ 이런 의식은 문자가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문화적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로마제국의 수도에서 박해 받았던 소규모 공동체로 출발했던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중세의 유일 종교로 성장하여 천년 이상 유럽사회를 지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자가 어떤 역

7) 알베르토 망구엘에 따르면 신약에는 구약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인용한 부분만도 275군데나 되고 명백히 구약 내용을 언급한 곳도 235군데나 있다고 한다. 망구엘, 알베르토(2000), 정명진 옮김,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p. 149 참조.

8) Drogin, Marc (1989), *Biblioclasm. The Mythical Origins, Magic Powers, Perisability of the Written Word*. Maryland, p. 33.

9) 키스, 토마스(2014), 이종흡 옮김, 『종교와 마술. 그리고 마술의 쇠퇴』, 나남, p. 109 이하 참조.

함을 담당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문자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구 중세사회는 문자의 독점을 통한 지배로 시작하여 문자의 확산으로 인한 저항으로 끝을 맺게 된다.

3. 지배의 문자

로마제국은 문자를 습득한 관료들에 의해 통치되었고, 관료들의 의사소통은 고도로 효율적인 도로망을 통해 쉽게 수송될 수 있는 가벼운 무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서구의 많은 지역들이 정복자 게르만족에 의해 문자가 아닌 구두로 통치하는 시대로 되돌아갔다. 로마제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회의 주교기구가 등장했다. 4세기 말과 5세기 초엽에 교회는 자신이 갖고 있던 제도와 권력을 통해 로마제국의 내부적 쇠퇴와 야만족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며 싸웠다. “교회는 로마세계와 야만세계 사이에서 문명을 전달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했다. 교회는 문명의 도구이자 원리였다.”¹⁰⁾ 그 중심에 교황 레오 1세(?-461)가 있었다. 그는 로마교회를 로마제국의 계승자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미 문자를 습득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의 수도원 네트워크가 성장하면서 레오의 노력은 로마교황청을 중세 권력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로마제국 멸망 시기에 많은 귀족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고 자신들이 맡고 있었던 문자교육과 문자보존의 역할을 교회에 넘겼다. 교회는 많은 문자 습득자를 끌어들이었지만, 문자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소수 집단에 국한되었다. 로마귀족들이 교회로 넘겨준 문자의 숭배와 보존 작업은 그리스도교 교리와 융합되어 수도원을 구두문화 속의 문자화된 섬

10) 기조, 프랑수아(2014), 임승휘 옮김, 『유럽 문명의 역사』, 아카넷, p. 81.

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교 수도원 제도를 문자의 승배와 보존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이론을 제공한 것은 성 베네딕트와 성 카시오도로스의 저술들이었다. 그들은 수도원 필사실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기술했고, 책의 복제를 신성한 행위로 묘사하였다. 또한 문자의 보존과 전달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문자를 읽는 능력과 성직자의 종교생활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수도원은 자연스럽게 배타적이고 문화적 특권을 지니는 장소로 발전했으며 도서관, 학교, 필사실 등을 갖추게 되었다. 수도원이 택한 고립은 반대로 문자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도 작용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은 중세 초기 효과적인 교육제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서관과 교사들을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었다.

수도원이 중세 초기에 번창한 또 다른 이유는 문자를 담아내는데 필요한 매체와 관련되어 있다. 로마제국은 효율적인 우편제도와 관료기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무게는 가볍지만 찢어지기 쉬운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기록매체로 선호했다. 고대사회에서 이런 파피루스보다 양피지를 선호했던 거의 유일한 집단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였다. 초기의 그리스도교도들이 양피지 필사본을 선호했던 이유는 두루마리보다 내용을 찾아보기 쉬웠고, 박해 시절에 로마군의 불심검문에 숨기기도 쉬웠을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 중에도 지니고 다니기에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서구에서는 양피지가 파피루스보다도 구하기 쉬웠다. 이집트의 나일강 부분에서만 재배되는 파피루스와는 달리 양피지는 서유럽 전체에 걸쳐 드문 드문 퍼져 있었던 수도원에서 쉽게 생산될 수 있었다. 수도원들은 주위 농가에서 키우는 가축의 가죽으로 양피지를 제조할 수 있었다, 양, 소, 염소, 토끼, 다람쥐 등은 다양한 양피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가죽을 제공해 주었고, 거위의 깃은 펜으로 사용되었으며, 잉크는 오배자, 유기철염 등에서 공급되었다. 이런 원료들은 중세 초기 서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풍부했다.

중세 초기 파피루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교황과 수도원의 이권은 더욱 커졌다.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서구로의 파피루스 유입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결과 양피지는 서구에서 문자를 담는 유일한 기록매체가 되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사회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수도원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하나의 섬이었으며 지식생산의 중심지였다. 수도원 밖에서의 문자사용은 대부분 사리지게 되었으며 성직자들만이 문자로 된 정보를 보관하고 공급하게 되었다. 문자가 곧 권력이었던 시대에 그리스도교는 이와 같이 서유럽 전체에 걸쳐 번성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잡게 된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이단적 저술을 무시하고 그리스도교 저술을 장려하였다. 고대의 이교도 저작들은 성직자들의 언어적 스타일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간혹 용인되었다. 양피지의 공급이 모자라자 성직자들은 이교도 저작들을 통해 복음서를 재필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런 중복 사용된 양피지에서 후대에 수많은 고대 텍스트들이 재발견되기도 하였다.¹¹⁾

600년에서 1100년 사이 대략 90%의 문자 사용자를 가르치는 유일한 교육 기구가 수도원이었다. 중세에는 교육이 곧 개종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포교가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중세 중기에 유럽에서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성인 인구의 비율은 20세기 말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는 성인의 비율보다 분명히 높았을 것이다. 교황청은 정해진 의례를 통해 미사의 내용을 통제함으로써 서유럽 전반에 걸쳐 교회 교리를 확고히 했다.¹²⁾

중세의 귀족들은 전반적으로 문맹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기능을

11) Hauschild, Stephanie (2013), *Skriptorium. Die Mittelalterliche Buchwerkstatt*. Darmstadt/Mainz, p. 14.

12) 디버트, 로널드(2006), 조찬수 옮김,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질서』. 나남출판, p. 133 참조.

수행하는 데 성직자들에게 의존했다. 문자를 습득한 성직자의 위치는 교회가 간접적으로라도 교회문제뿐만 아니라 세속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성직자들은 다른 어떤 사회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평판을 누리게 되었다. 그들의 문자사용 능력은 세속의 행정기능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12세기까지 왕의 대법관, 국가고문, 세속통치자의 주요 대신으로 베네딕트회 수사들이 고용되는 경우는 흔했고, 이는 9세기까지 수도원이 고립적인 문자사용으로 섬으로 국한되었던 시기와 상당히 다른 변화였다.

교회는 성직자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자화된 행정과 공식 문서화를 더욱더 요구하게 되었다. 12세기 알렉산더 3세하에서 교황청의 행정 및 사법 활동이 확대되었고 전문화되었는데, 이는 문자가 교회활동에 깊숙이 침투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공의회 결정 사항들은 교서와 같은 공식성명을 통해 발표되었고 서구 그리스도교 사회 전역에 걸쳐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4. 저항의 문자

중세 중기 교회의 권위가 정점을 찍고 난 후 대항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세력들의 다수는 문자정보에 대한 교회의 독점에 반발하면서 등장했다. 문자를 통해 권력의 힘을 맞본 교회는 점차 불법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변해갔고, 교황청은 복잡한 하향식 행정기관으로 변해갔다. 교황과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은 종교적 문제만큼이나 교회법에 능통하게 되었다. 이제 교황청은 종교재판소나 행정실과 같은 분위기를 지니게 되었다. 교회 내에서 하위직 성직자들은 교회의 위계질서에 회의를 갖게 되었고, 교회가 복음서의 가르침이나 사도의 빈곤 기준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불만의 뚜렷한 징후는 서구 전역에 걸쳐 갑작스럽게 불붙은 민중적 이단 운동이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성서에 기반하여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로마교회의 특징인 추상적이고 율법적인 기구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¹³⁾. 11세기에는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현세의 정신적 퇴락에서 빠져나오라고 설파하는 은자 성인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¹⁴⁾ 이런 이단 운동들은 몇 세기 동안 지속되며 결국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

로마교회의 초국가적 권위가 도전 받은 두 번째 영역은 지식 재생산의 영역이었다. 12세기까지 교회는 문자의 재생산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2세기 중반부터 중대한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다. 세속의 문자사용이 도시 시민들, 특히 행정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세속에서 문자사용이 늘어남으로써 필사생의 공급이 수도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세속에서 문자사용을 급속도로 증가시킨 사회기구 중 하나는 새로 설립된 대학이었다.¹⁵⁾ 대학으로 인해 새로운 독서 계층이 형성되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학습을 위해 교재를 필요로 했고 필사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 내에 도서관이나 서점이 세워졌다. 서적상 길드로 조직된 전문장인들이 학교교재 제작을 위해 대학에 고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설립은 교회의 문자사용 독점권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13) 왈도파와 카타리파를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린치, 조셉(2010), 심창섭/채천석 옮김, 『중세교회사』, 서울: 솔로몬, pp. 361-377을 참조하십시오.

14) 예컨대, 로버트(Robert of Arbrissel, 1047-1117)의 종교적 삶이 대표적이다. 그는 종교 권속의 주요 성직자였으나 50세 되던 해에 숲 속으로 들어가 은둔자가 되었으며, 가끔 누더기 옷에 긴 머리와 수염을 한 채 맨 발로 여행하며 설교하였다. 그는 민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설교자였지만, 평신도들 앞에서 행한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지역 주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디버트(2006), p. 362 참조.

15) 서유럽에서 설립된 최초의 대학은 볼로냐대학(1088)이다. 이어서 파리(1150), 옥스퍼드(1167), 캠브리지(1209), 프라하(1348), 하이델베르크(1386) 등지에서 대학이 세워졌다.

다른 사회영역에서도 문자사용을 갈망하는 새로운 그룹이 도시의 시민계급에서 형성되었다. 중세에 국제어였던 라틴어에 비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었던 민중어가 점차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각 지역의 세속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수도원의 문자독점을 더욱 약화시킨 요인은 통치 관료기구의 등장이었다. 이 기구가 요구하는 문자사용자가 대학에서 충원되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어졌다. 이런 변화는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신학에서 법학으로 바꿈으로써 추측될 수 있다.¹⁶⁾ 13세기에 이르면 농민들 간의 재산거래는 구어적인 서약보다는 문자로 작성한 계약서로 바뀌게 된다.

이제 필사생의 공급은 수도원 밖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사회적 압력이 높아질수록 문자의 복제 작업은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진다. 복제 과정의 여러 구성요소에 맞추어 독립적인 작업장들이 생겨났다. 필사생, 주서(朱書)가¹⁷⁾, 채식사(彩飾師) 등은 각각 자신들만의 작업장을 갖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되었다.

문자사용이 급증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종이의 등장이었다. 중국에서 발명되어 이슬람세계를 거쳐 12세기 유럽에 상륙한 종이는 양피지에 비해 가격도 싼고 가벼우며 제작과정도 비교적 간단했다. 14세기 후반부터 종이는 양피지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종이 제지업이 발달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¹⁸⁾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이는 곧 문자사용의 증가를 가능하게 해 주는 매체로 발전하였다. 15세기 문자사용의 엄청난 증가는 종이가 없었

16) 예컨대 루터도 처음에는 ‘미래에 안정된 삶을 위해’ 법학을 전공한다.

17) 중요한 구절을 붉은색으로 강조하는 사람.

18) 독일에서는 1391년 뉘른베르크의 부호 올만 슈트뢰머가 곡물방앗간을 개조해 최초로 종이를 만드는 제지방앗간을 만들었다. 『쉐펠연대기』(1493)에는 슈트뢰머의 제지방앗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종이로 인해 가능해진 엄청난 양의 필사본 제작은 마침내 인쇄술이라는 무한 복제기술을 발명하게 만든다. 종이는 문자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기록매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문자를 지배하는 세력인 교회는 15세기에 들어서자 초기의 민중적 신앙에서 점차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교황청은 점점 부패해졌고, 교황들이 권력 놀이에 가담하거나 굴복했을 때 교황청의 권위는 추락했다. 교회의 대중성 상실에 실망한 그리스도교도들은 14세기 서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교회의 타락에 대한 신의 불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까지 해석하였다. 인쇄술이 나타나기 이전에 교회가 이단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던 주된 이유는 교회가 문자사용을 완벽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강압적으로 진압하지 못한 이단들에게 특권을 부여해 포섭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단들은 나름의 논리를 지니고 교회권력에 대항했으나 대중매체를 가지지 못한 관계로 그들의 주장은 매번 헛된 메아리로 사라졌다.

13세기에 설립된 종교재판소는 사회 내에 커져가던 이단적 요소들에 대해 강력히 응징함으로써 교회 권력을 보호하는 기구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인쇄술이 가져다 준 정보 유포의 신속함은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넘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퍼뜨릴 수 있게 해주었으며 여기에 대해 교회는 속수무책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쇄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교회도 복제의 양과 신속함에 열광했다. 이슬람세계에 대항하기 위해 십자군을 조직했을 때 교회는 인쇄기를 이용했으며,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제작한 인쇄물도 면벌부였다. 교회는 수천 부씩 순식간에 복제할 수 있는 면벌부를 보고 인쇄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문자사용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인쇄술은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수도원들은 마인츠에서 발명된 인쇄술을 도입하여 수도원 내에 인쇄소를 만들고 수사들에게 인쇄술을 가르쳤다. 수

도원과 교회로부터 라틴어성서, 미사집, 시편, 성무일과서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신기술은 거침없이 성장하고 번창하였다. ‘공동생활 형제회’¹⁹⁾가 인쇄한 책에 인쇄술은 ‘교회의 시녀’라는 현시가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인쇄술 초기의 이 모든 긍정적 현상은 순식간에 다른 양상을 띠며 나타나기 시작한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인쇄술의 진정한 영향력은 교회 권력에 치명타를 안기게 된다.

통제 가능한 사회에서 지배의 매체였던 문자는 이제 인쇄술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사회가 됨으로써 저항의 매체로 변신하게 된다. 인쇄술이 종교개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통설이 되었다. 물론 종교개혁은 인쇄술만으로 야기되지는 않았다. 16세기 초 독일에는 시민과 농민, 직공과 상인, 그리고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 종교적 환경에 불만을 공유하고 있었고, 더 정의롭고 그리스도교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특정한 이단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히 퍼지면서 교회의 권력을 일순간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데는 인쇄술만큼 효과적인 기술은 없었다. 대량복제를 통한 대중의 정보공유라는 인쇄술의 속성은 종교개혁에 유리하게, 교회 권력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1517년 루터가 로마교회의 면벌부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대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라틴어로 작성된 95개 논제는 독일어로 번역되어 15일 만에 독일의 전 지역에 유포되었다. 홀보른의 견해에 따르면 1517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책이 교회 밖에서 수용될 수 있었던 대량 생산물이 되었고, 책이 일종의 ‘예술품’²⁰⁾에

19) 14세기 말에 설립된 신앙공동체로서 많은 양의 책을 복제하여 필사본의 확산에 기여했고, 인쇄술이 발명된 후 1468년 수도원에 최초로 인쇄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20) 종교개혁 이전의 책은 필사본과 어느 정도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예컨대 이 시기에 책은 고가의 가격은 물론이고 주문 생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책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매체의 기능보다는 책 주문자의 기호에 맞게 장식이나 제본을 해줌으로써 예술품으로서의 기능을 더 지니고 있었다.

서 이전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기능이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종교개혁으로 교회는 인쇄업자들의 최고의 고객이 되었다. 새로운 그룹의 고객을 끌어들이므로써 루터는 인쇄술의 주목적에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했다. 대량 판매를 위해 질이 양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다. 인쇄술은 자체 만족의 예술에서 아이디어와 소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쇄업자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탈바꿈한 것은 루터에 의해 만들어진 3가지 큰 공헌, 즉 새로운 언어, 새로운 형태, 새로운 콘텐츠로 인해 생기게 되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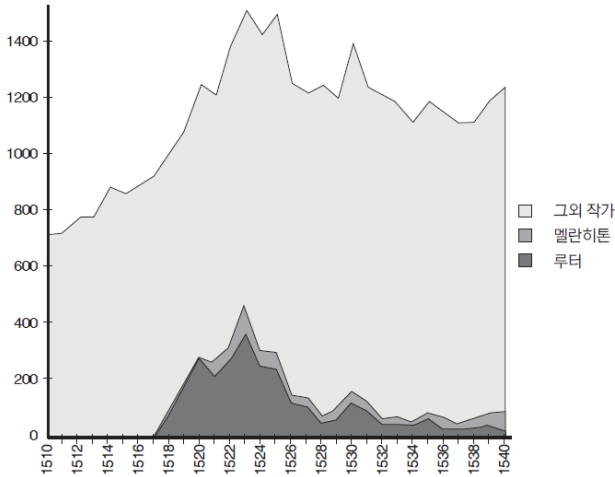
소위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저서’인 『교회의 바빌론 유수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인의 자유에 대하여』, 『독일의 그리스도교 귀족에 대하여』 등은 1520년에 출간되었으며, 신약의 독일어 번역인 『9월성서』는 2년 뒤에 출간되었다. 루터 저서 판매의 정점은 1523년으로 독일어권에서 무려 350종을 인쇄하였다.²²⁾ 여기에 추가로 대략 100종의 멜란히톤 작품을 고려한다면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1520년에서 1525년 사이에 집필된 두 작가의 작품은 오늘날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 123) 참조)

인쇄 환경이 종교개혁의 이익과 일치했던 또 다른 요인은 작고 싼 전단지的大量생산이었다. 전단지는 선전내용의 급속한 전파, 저렴한 매체

21) Holborn, Louise W. (1942), “Printing and the Growth of a Protestant Movement in Germany from 1517 to 1524”, in: *Church History* 11, p. 126.

22) 크노프는 루터의 작품을 읽는 독자만 1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Vgl. Knoop, Ulrich (1994), Entwicklung von Literalität und Alphabetisierung in Deutschland. In: H. Steger/H.E. Wiegand (Hg.), *Schrift und Schriftlichkeit*. Berlin/New York, pp. 859-872, hier: p. 864.

23) Vgl. Neddermeyer, Uwe (1998), *Vor der Handschrift zum gedruckten Buch*. Wiesbaden, p. 697.



[그림 1] 루터와 멜란히톤의 인쇄물과 독일의 전체 인쇄물

를 원했던 개혁가들의 전략적 이익과 맞아 떨어졌고, 제작자와 소비자들이 교회당국의 검열을 피하는데 유리했다. 전단지에는 독일어로 ‘Flugschrift’인데,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날아다니는 문자’이다. ‘날아다니는 문자’는 교회당국의 코앞에서 체제전복의 메시지를 유포시키는 데 이상적인 매체였다. 또한 제작에 드는 비용이 비싸지 않았고 간편했기에 현재 진행 중인 종교적 논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 더 많은 대중을 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단지에는 독일어로 제작되었다. 독일어의 사용은 라틴어 문자 사용을 독점하고 있었던 교회 권력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었다.

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대량생산된 책과 전단지라는 매체를 통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른 이단들이 누리보지 못했던 민중적 지지를 받았다. ‘거대한 종교적 선전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상들이 전 유럽을 휩쓸었다. 이제 대량생산된 문자는 저항의 매체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5. 성서의 금지와 장려

1538년 『탁상담화』에서 루터는 성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30년 전에 아무도 성서를 읽지 않았다. 성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지의 것이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먼지에 쌓여있는 성서를 발견했다.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성서를 읽었고 스승인 슈타우피츠 박사가 놀라워할 정도로 반복해서 열심히 읽었다.²⁴⁾

여기서 30년 전이면 루터가 1505년 에르푸르트대학 재학시절 ‘천둥 체험’을 한 후 법학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즈음일 것이다. 그 당시 대학생 루터에게 성서는 미지의 것이었다. 루터가 도서관에서 먼지로 덮인 성서를 찾아 읽었다고 하니 그 당시 평신도에게 성서는 미지의 책이었다.

중세의 성서 연구가이며 언론인인 한스 로스트(1877-1970)는 다음과 같이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끝맺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세는 단 한 권의 책이 지배하는 시대이며, 그 책은 바로 성서이다.²⁵⁾

위 두 인용문을 비교해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루터는 “성서를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세 연구자는 왜 중세가 성서의 시대라고 선언했을까? 그리스도교가 유일 종교였던 중세사회에서 성서는 교회만이 소유와 강독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며, 성서가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저항을 위한 수단으로 중세사회의 권력중심을 이동시

24) Beutel, Albrecht (Hg.)(2010), *Luther Handbuch*. 2.Aufl. Tübingen; UTB, p. 258에서 재인용.

25) Rost, Hans (1939), *Die Bibel im Mittelalter*. Augsburg: Seitz in Kommission, p. 420.

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교회의 역할은 성서를 해석하여 일반 민중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성서를 뜻하는 독일어 ‘die Heilige Schrift’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성스러운 문자’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성서’(聖書)라는 우리말의 한자적 의미와 동일하다. 이런 ‘성스러운 문자’로 구성된 성서의 소유와 강독은 교회 고유의 권한에 속했다. 그래서 중세 동안 교회는 평신도에 대해 ‘성서금지’(Bibelverbot) 정책을 꾸준히 유지했다.

5세기부터 성서의 모든 책을 구분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신약을 읽으라는 권유가 평신도에게 하달되었다. 구약은 잘못 이해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었다. 교황 겔라시우스 1세는 5세기 말 그리스도교 신자가 외경을 강독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성서의 강독을 금지시키지는 않았다. 인노첸티우스 3세는 신의 문자를 읽고 연구하려는 욕망은 나무랄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스스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199년 메스 주교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적인 회합에서 성서강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개인이 성서를 거의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금지는 실제로 평신도들에겐 무의미한 조치였다.

그러나 『불가타』를 원본으로 하여 성서를 독자적으로 번역하였던 카타리파와 발도파의 성서 중심주의적 대중운동에 즈음해서 교회는 성서의 강독이나 소유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에 나서게 된다. 인노첸티우스 3세가 소집했던 알비파 십자군원정이 끝난 후 1229년 그레고리우스 9세의 주도 하에 툴루즈의 주교회의에서 이 교회지역 평신도에 대한 일반적인 성서금지가 선포되었는데, 라틴어로 된 시편과 성무일과서만이 허용되었다.

우리는 시편 혹은 짧은 성무일과서 혹은 예배용 성 마리아 기도서를 제외하고,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평신도가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군다나 **평신도가 언급된 책을 민중이 번역본으로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한다.²⁶⁾

주교회이나 공의회에서 어김없이 언급되고 논의되었던 성서금지 정책은 그 실효성이 회의적이었지만,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성서 단 1권을 필사하는데 평균 3년이 걸렸던 시대에 마인츠의 구텐베르크는 같은 기간에 무려 180부의 성서를 제작할 수 있었다.²⁷⁾ 구텐베르크가 1454년 금속활자를 이용해 라틴어성서인 『불가타』를 인쇄한 이래, 인큐내블러시기(1450-1500)에 성서와 관련된 출판물은 다른 인쇄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직자였던 시기에 인쇄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서보다 더 좋은 출판물이 없었다. 라틴어성서만도 109종이 인쇄되었다. 성직자들이 보거나 대학 연구용으로 사용된 이런 라틴어본 뿐만 아니라 민중어로 된 성서도 많이 존재했다. 독일어성서가 14종, 이탈리아성서가 4종, 그리고 프랑스어성서, 스페인어성서, 플랑드르어성서, 체코어성서 등이 인쇄되었다.²⁸⁾

독일어성서는 1466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멘텔린에 의해 최초로 인쇄된 이래 2, 3년 간격으로 계속 아우크스부르크와 뉘른베르크에서 인쇄되었다. 교회의 성서금지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었지만 인쇄업자들의 의식에는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독일어성서를 인쇄했는데, 교회에 의해 유통 금지되거나 압수, 심지어 벌금이나 형벌을 감수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독일어성서의 인쇄업자들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성서가 교회도 공인한 『불가타』를 번역했다는 사실을 항상 언급했으며, 성서의 첫 부분에 어김없이 불가타의 저자인 히에로니무스의 초상화를 등장시켰는데, 그는 로마교회 추기경 복장을 하고 있다.

26) Herzog, J. J. (Hg.): *Realenzyklopädie für protestantische Theologie und Kirche*, Bd.2, p. 703.

27) 뷔셀, 슈테판(2014), 최경은 옮김, 『구텐베르크와 그의 영향』, 연세대출판부, p. 27.

28) 페브르, 뤼시앵/앙리 장 마르탱(2014), 강주헌/배영란 옮김, 『책의 탄생』, 돌베개, p. 423.



[그림 2] 로마교황청 추기경 복장을 한 히에로니무스(플란츠만성서, 1475)

(그림 2 참조) 이런 연유로 인큐내블러시기에 인쇄된 독일어성서를 ‘불가타의 독일어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1478년에 제작된 『퀵른성서』는 이런 교회의 눈치 보기에서 과감히 벗어나 성서의 구매를 평신도에게 광고하고 있다. 머리말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서 강독을 권유하고 있으며, 삽화, 번역, 텍스트 설명 요소 등에서 평신도를 위한 독서용 성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쇄되었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성서를 제작하는 것이 편집자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성서를 경건하고 아주 열심히 읽어야 한다. …… 따라서 모든 사람, 예컨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성직자나 세속인은 성서에서 자신의 영혼 구원과 위안을 찾기 위해

각자에게 맞게 성서를 반드시 강독해야 한다.²⁹⁾

이제 성서는 ‘자신의 영혼 구원과 위안을 찾기 위해’ 세속인도 읽어야 하는 독서용 성서임이 강조되어 있다. 머리말의 저자는 이런 취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즉, 계속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더 이상 자신들의 해석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저자는 경험이 없는 독자들을 독립적인 성서 강독으로 이끄는 길을 세심하게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켈른성서』는 『아가서』를 성서에서 제외시켰는데,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평신도에겐 오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계속해서 저자는 민중어로 번역된 성서가 교회의 교수 권위와 나란히 하거나 교회가 반대하는 독자적인 성서 해석에 발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원에 사는 성직자나 수녀들은 성서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교회의 해석으로 사용하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금지 정책을 꾸준히 지시했던 교회는 성서의 대량출판에 당황했다. 면벌부 인쇄로 재미를 본 로마교회는 인쇄술을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추켜세웠으나 곧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켈른성서』가 출간되고 1년이 지난 후인 1479년 3월 17일 켈른대학 성직자들은 성서 강독에 반대하는, 특히 여성의 성서 강독에 반대하는 교황 식스투스 4세의 교서를 받게 된다. 이 교서에는 켈른대학이 민중어로 제작된 종교작품의 인쇄에 대해 검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⁰⁾ 이 교서가 실제로 『켈른성서』에 대한 교회의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될 수

29) Wulf, Christine (1991), *Eine volkssprachige Laienbibel des 15. Jahrhunderts*. München, p. 8에서 재인용.

30) Vgl. Reusch, F. H.(1883), *Der Index der verbotenen Bücher. Ein Beitrag zur Kirchen und Literaturgeschichte. 1. Band*, Max Cohen & Sohn, Bonn, p. 17, 43, 44.

는 없는데, 왜냐하면 막 인쇄된 『퀵른성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독일어성서를 뜻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초로 평신도의 독서용 성서를 표방한 『퀵른성서』의 출간과 더불어 로마교회의 교서가 나왔다는 사실은 독일어성서의 확산에 위기감을 느낀 교회의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1486년 1월 4일 검열 칙령과 1월 10일 시행세칙을 통해 선제후이며 대주교인 마인츠의 베르톨트 폰 헤네베르크(1441-1504)는 마인츠, 에르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어권에서 최초의 검열 규정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고, 종교적 텍스트, 특히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텍스트가 문제였다. 그는 잘 표현된 라틴어와 그리스어 텍스트를 번역하기에는 독일어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했다. 이 교서에서 성서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적인 서적 인쇄술은 온 세상에 교리와 구원을 위한 서적의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기술을 명예욕이나 금전욕으로 오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 기술이 인간성을 계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시킨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종교의 최고 서적들의 가치 하락이 민중의 손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성스러운 율법과 정경은 현명하고 달변의 남성들에 의해 아주 세심하고 숙련되게 편집되며, 그 이해는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선 아주 명석한 사람조차도 평생 동안 거의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뻔뻔하며 무지한 자들이 학자들조차도 자기의 작업을 통해 커다란 오해로 들어가기 쉬운 그 서적들을 형편없이 단순한 독일어로 감히 번역하고 있다. 이런 번역자들은 그들이 좋은 신앙에서 번역하든, 나쁜 신앙에서 하든 간에 독일어가 훌륭한 그리스어 작가나 라틴어 작가가 아주 세심한 표현의 정확성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상한 사색에 대한 대상의 아주 완벽한 지식을 통해 저술한 것을 정

확히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언어의 빈곤함이 자신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며, 자신들이 이런 이유로 새로운 표현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두뇌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혹은 몇몇 구 작가들의 경우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한다. 성서와 결부된 위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옛 서적만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공개된 진실의 내용을 바꾸어서 거기로부터 성서에 대한 엄청난 위험이 생겨나는 것을 아주 걱정하기 때문이다. **성서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문자를 모르는 남성이나 여성들에게 올바른 의미를 찾을 능력을 누가 주겠는가?**³¹⁾

독일어로 번역된 모든 책에 대해서 인쇄하여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가 위임한 대학교수의 허가가 요구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쇄업자는 파문을 당할 수도 있으며, 서적들은 몰수되고 황금 100굴덴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1486년 인노켄티우스 8세의 교서를 근거로 쾰른에서도 대학에 의해, 후에 대주교의 재판관에 의해 수행되었던 ‘사전 검열’(Vorzensur)이 시작되었다. 알렉산더 6세는 1501년 6월 1일의 교서를 통해 성직자 선제후가 다스리는 세 지역 즉, 쾰른, 마인츠, 트리어 그리고 주교령인 막테부르크에서 출간된 모든 서적들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의 검열’(Präventivzensur)을 확장시켰다. 교황 레오 10세는 1515년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서에서 모든 교구에 인쇄되는 서적 혹은 문서는 종교 재판관, 주교 혹은 주교가 위임한 학자에 의해 세심하게 검열되고 그들의 친필 서명으로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공개 소각을 통한 서적의 손실, 100두카텐의 벌금, 1년 동안 인쇄허가 박탈 그리고 파문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무허가 인쇄를 반복할 경우 주교

31) Kapp, Friedrich (1886),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handels. Band 1: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handels bis in das siebzehnte Jahrhundert*, Verlag des Börsenvereins der Deutschen Buchbändler, Leipzig. (Reprint), pp. 529-530에서 재인용.

는 많은 정당한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감히 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위반자를 교육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³²⁾

성서금지, 특히 민중어 성서금지에 대한 로마교회의 압력은 인쇄되는 성서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금지 조치가 계속 쏟아져 나왔다. 성서를 두고 금지와 장려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는 종교개혁을 통해 급격히 해소된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시발점으로 ‘성서의 재발견’을 들 수 있다. 토마스 카우프만은 그의 저서 『종교개혁의 시작』에서 ‘평신도용 성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성서’, ‘루터성서’가 종교개혁을 추진하였다고 역설하고 있다.³³⁾ 루터의 ‘sola scriptura’(오직 성서만으로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칙이 되었다.

“문헌학적으로 정제된 텍스트에 기초하고 원문에 충실한 구속력 있는 번역을 통해 똑같이 재현된 하나의 책을 신앙 선포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종교개혁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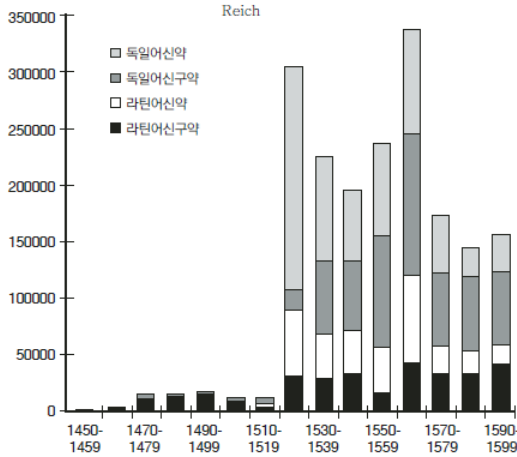
비텐베르크의 인쇄업자 한스 루프트 한 사람이 1534년에서 1574년까지 10만부의 『루터성서』를 출판하였다. 네더마이어에 따르면 1522년에서 1599년까지 신성로마제국에서는 독일어신약, 독일어신구약, 라틴어신약, 라틴어신구약 모두 합쳐 약 180만부 정도 인쇄되었다. 그림 3³⁵⁾에서 금방 알 수 있듯 종교개혁 전후로 성서의 출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32) Schmitz, W.(1999), “Reformation und Gegenreformation in der Entwicklung von Buchdruck und Buchhandel.” In: *Die Buchkultur im 15. und 16. Jahrhundert*. Hrsg. v. Vorstand der Maximilian-Gesellschaft u. B. Tiemann. Hamburg 1999, p. 301.

33) Kaufmann, Thomas (2012), *Der Anfang der Reformation*. Tübingen 2012, p. 68.

34) 파울슈티히, 베르너(2007), 황대현 옮김,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지식의 풍경. 2007, p. 259.

35) Neddermeyer (1998), p. 706.



[그림 3] 신성로마제국에서 성서의 인쇄

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제 “성서는 루터가 자신의 글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했던 학습서”³⁶⁾가 되었다. 그가 “도서관에서 먼지에 쌓여있는 성서를 끄집어내어” 독일어로 번역한 중국적인 목적은 성서를 모든 가정에 갖다 놓는 것이었고, 이 목적은 그가 죽은 후 “신성로마제국 전체에서 2가구 당 1가구가 성서를 지니게 됨으로써”³⁷⁾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이런 성서의 대량보급으로 각 개인이 스스로 신학자가 되었으며, 로마교회와 같이 중앙집권화된 지식 재생산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다. 인쇄술은 종교개혁가에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로마교회에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쇄기를 통해 종교개혁가는 논쟁에서 선수를 칠 수 있었고, 로마는 교리의 이름으로 인쇄술을 반대하고 억누르는 다소 자포

36) Flachmann, Holger (1996), *Martin Luther und das Buch*. Tübingen, p. 137.

37) Engelsing, Rolf (1973): *Analphabetentum und Lektüre. Zur Sozialgeschichte des Lesens in Deutschland zwischen feudaler und industrieller Gesellschaft*. Stuttgart, p. 29.

자기하고 소용없는 입장을 종종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성서는 중세사회에서 지배를 위한 매체로 시작하였으나, 인쇄술 발명으로 저항의 매체로 변신하게 되었으며, 중세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6. 결론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표현은 부질없는 가정에 지나지 않지만, ‘만약에’ 서구 사회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문자로 남기지 않았다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라틴어성서 『불가타』를 인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지 않았다면, 분명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것이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 위 세 가지 사건에서 분명한 것이 모두 문자와 관련되어 있고, 그 문자는 권력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문자가 발명되고 그 사용이 드물었던 시대에 예수는 구전으로 복음을 전한다. 예수의 시대에 문자의 사용자는 극소수였고, 문자를 기록하는 매체가 귀한 시대였다. 예수의 말씀은 곧 문자로 기록되어 경전으로 발전되었으며, 경전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성직자들이 맡게 되었다. 그들이 문자로 기록된 성서와 중세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를 독점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평신도와 대다수가 문맹인 백성들을 지배했다.

대학의 설립, 종이의 유입, 도시계급의 성장 등은 문자를 매체로 중세를 지배했던 교회와 수도원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문자사용을 독점하고 있었던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평신도를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성서금지 정책이었다. 성서가 이해하기 어렵고, 왜곡의 위험도 항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는 성서를 구입하거나 읽지 말고, 교회를 통해 성서를 이해하라는 것이 성서금지 정책의 주 내용

인데, 특히 성서가 독일어같은 민중어로 번역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인쇄술의 도움으로 문자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 되었다. 문자가 소수의 독점으로 인한 지배의 매체에서 다수의 사용을 통한 저항의 매체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의 결과물이 종교개혁이다. 인쇄술이라는 대량복제 기술과 종교개혁이라는 ‘성서 다시읽기 운동’을 통해 문자는 예술품에서 대중매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논 저】

- 기조, 프랑수아(2014), 임승휘 옮김, 『유럽 문명의 역사』, 아카넷.
- 디버트, 로널드(2006), 조찬수 옮김,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질서』, 나남출판.
- 린치, 조셉(2010), 심창섭/채천석 옮김, 『중세교회사』, 서울: 솔로몬.
- 망구엘, 알베르토(2000), 정명진 옮김,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 이혜민(2013), 『중세유럽의 문자관: 세비아의 이시도루스의 『어원』을 중심으로, 『문자개념 다시보기』(인문학연구원 HK문자사업단 편), 연세대 출판문화원, pp. 215-245.
- 최경은(2013), 『독일 인쇄술의 기원과 발전』, 연세대 출판문화원.
- 키스, 토마스(2014), 이종흡 옮김, 『종교와 마술. 그리고 마술의 쇠퇴』, 나남.
- 파울슈티히, 베르너(2007), 황대현 옮김,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지식의 풍경.
- 페브르, 뤼시앵/양리 장 마르탱(2014), 강주현/배영란 옮김, 『책의 탄생』, 돌베개.
- 퓌셀, 슈테판(2014), 최경은 옮김, 『구텐베르크와 그의 영향』, 연세대 출판문화원.
- Beutel, Albrecht (Hg.)(2010), *Luther Handbuch*. 2.Aufl. Tübingen; UTB.
- Drogin, Marc (1989), *Biblioclasm. The Mythical Origins, Magic Powers, Perishability of the Written Word*. Maryland.
- Engelsing, Rolf (1973), *Analphabetentum und Lektüre. Zur Sozialgeschichte des Lesens in Deutschland zwischen feudaler und industrieller Gesellschaft*. Stuttgart.
- Flachmann, Holger (1996), *Martin Luther und das Buch*. Tübingen.
- Foucault, Michel (1970): *The Order of thing, An Archaeology of Human Sciences*. New York.
- Hauschild, Stephanie (2013), *Skriptorium. Die Mittelalterliche Buchwerkstatt*. Darmstadt/Mainz.
- Herzog, Johann Jakob (Hg.)(1854-1866), *Realenzyklopädie für protestantische Theologie und Kirche Bd. 1 -22*. Hamburg. Hier: Bd.2.
- Holborn, Louise W. (1942), "Printing and the Growth of a Protestant Movement in Germany from 1517 to 1524", in: *Church History 11*, pp. 123-137.
- Kapp, Friedrich (1886),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handels. Band 1: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handels bis in das siebzehnte Jabrbundert, Verlag des Börsenvereins der Deutschen Buchhändler, Leipzig. (Reprint).

Kaufmann, Thomas (2012), *Der Anfang der Reformation*. Tübingen.

Knoop, Ulrich (1994): Entwicklung von Literalität und Alphabetisierung in Deutschland. In: H. Steger/H.E. Wiegand (Hg.), *Schrift und Schriftlichkeit*. Berlin/New York, pp. 859-872.

Neddermeyer, Uwe (1998): *Vor der Handschrift zum gedruckten Buch*. Wiesbaden.

Reusch, F. H.(1883): *Der Index der verbotenen Bücher. Ein Beitrag zur Kirchen und Literaturgeschichte*. 1. Band, Max Cohen & Sohn, Bonn.

Rost, Hans (1939): *Die Bibel im Mittelalter*. Augsburg: Seitz in Kommission.

Schmitz, W. (1999): "Reformation und Gegenreformation in der Entwicklung von Buchdruck und Buchhandel." In: *Die Buchkultur im 15. und 16. Jabrbundert*. Hrsg. v. Vorstand der Maximilian-Gesellschaft u. B. Tiemann. Hamburg.

Wulf, Christine (1991): *Eine volkssprachige Laienbibel des 15. Jabrbunderts*. München.

원고 접수일: 2014년 12월 19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월 28일

ABSTRACT

Letters from a Means of Governance to Resistance
- Focusing on the Western Middle Ages

CHOI, Kyung-Eun*

In an age when written language was new and sparsely used, the Gospel was spread orally by Jesus Christ. The words of Christ were soon put down into what became scriptures; and the job of interpreting and preserving the holy words fell on the clergy. They monopolized the written scripture and Latin - the mediaeval common tongue - thereby holding dominance over the laymen and the largely illiterate commoners.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and growth of the urban population undermined the churches and monasteries. The exclusive employers of scripture attempted to control the laymen through various means. A case in point was the prohibition of bibles. However, such policies disintegrated, as the use of the written language jumped with the advent of the printing technology. The lettering system had transformed from a governing tool of the exclusive to a means of resistance by the masses.

* Institute of Humanities, Yonsei University

